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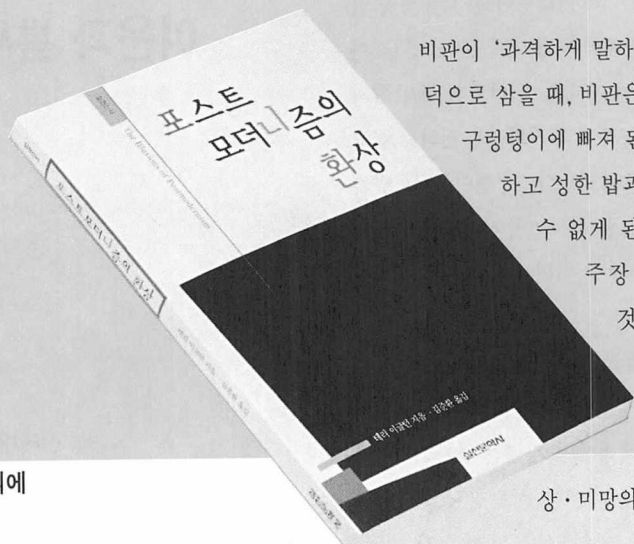
탈근대론의 미몽 깨우는 죽비소리

테리 이글턴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을 읽고

도정일 |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

탈근대론자들은 근대성을 가리켜 '폐기처분해야 할 것'의 총목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탈근대론자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근대의 제도적 유산 가운데는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번역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은 탈근대론의 극단주의에 휩쓸린 일부 국내 학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책이다.



실천문학사/A5신/244면/10,000원

비판이 '과격하게 말하기'를 경쟁적 미덕으로 삼을 때, 비판은 이미 물이성의 구렁텅이에 빠져 된장과 똥을 혼동하고 성한 밥과 신밥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탈근대론의 주장 모두가 허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논의의 90%는 극단적 오류·환상·미망의 제물이다.

여전히 유효한 근대적 유산

근대의 제도적 유산에는 이를테면 국민국가와 민주주의가 포함되고 그 이념적 유산에는 자유·평등·정의·인권 같은 보편가치들이 들어 있다. 해방이라는 주제도 그런 보편가치의 하나다. 국가주의를 청산한답시고 민주주의까지 내던질 것인가? 형이상학적 보편을 배척하느라 인간의 사회적·구성적 보편까지도 포기할 것인가? 목적론을 배격하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인간의 길고 끈질긴 꿈까지도 폐기할 것인가? 정체성의 요청은 본질론적 환상이기에 앞서 인간의 실존적 요청이다. 환상의 환상성을 비판하는 일과 인간의 역사적·실존적 요청을 외면하는 일은 같지 않다. 역사에 우연이 개입한다면 거기에는 동시에 인간이 만들어 넣는 필연도 작동한다. 어떤 '목적'을 구성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사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고 '기능'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근년 우리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근대비판의 상당수는 탈근대론의 극단주의에 휘말려 제 정신을 잃고 있다. 한국에서 근대를 말한다는 것은 서구적 근대비판과는 매우 다른 맥락의 작업이다. 서구에서조차도 설득력의 궁극적 고갈지점에 달해 있는 논법들을 디지털 복제기법으로 들여다 복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데는 이 책이 다소 도움이 될 듯하다.●

근대는 폐기처분해야 할 달갑잖은 과거인가 계승돼야 할 유산인가? '근대' (modernity)는 대략 18세기 이후 서구사회가 정치·경제·예술·사상·문화·생활세계·제도 등의 여러 층위에서 진행시킨 독특한 역사적 변화들을 총칭하고, 근대성·근대기획·근대화·근대주의·근대경험 등의 연관개념들을 포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학계(주로 사회학·철학·역사학·정치학·문학비평)가 바로 그 근대를 놓고 수행해온 비판·성찰·재고조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대를 둘러싼 논의가 이처럼 지속적인 것은 근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지금의 서구는 물론, 세계문명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인간이 할 일의 방향을 잡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망의 뒤편에 걸린 탈근대론

서구 근대는 비판이 금지된 무슨 신성한 시대가 아니다. 비판과 탈신비화는 오히려 근대의 특성이다. 근대는 어떤 신성한 것도 남겨두지 않고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과격한 세속화의 열정이 터져나온 시대, 탈주술적 비판과 이탈·단절·전복의 시대다. 그러므로 그 근대가 20세기에 들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역설적이게도 근대적 비판 전통의 부정이 아니라

그 지속이다. 그러나 서구근대는 서양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한 역사적 현상이면 서도 그것의 발생은 다원인(多原因)적 복합성을 갖고 있고 그 진행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그 결과는 세계적 차원의 다면성과 광역성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근대 비판에서는 근대의 무엇을 왜 비판하는가가 중요하다.

80년대 이후 등장한 탈근대론은 서구 지식인들의 근대 비판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유포에 속한다. 대체로 탈근대론이 보는 근대 유산은 계승의 대상이 아니라 불신·배척·청산의 대상이다. 이를테면 진보·이성·인간해방 같은 근대의 특징적 믿음들은 탈근대론에서는 모두 불신의 품목들이며 보편·목적(toles)·정체성·자율주체 같은 근대 가치들은 철저히 깨부숴야 할 형이상학적 악당이거나 본질론적 환상이다. 자유주의·사회주의를 비롯한 근대의 정치사상, 제도, 합리적 사회기획들도 근대 유산이라는 점에서 불신과 청산의 대상이다. 국가주의가 근대 유산이듯 민족주의도 근대 산물이므로 청산돼야 한다.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도 인과성·필연성·연속성·목적성이 없다. 말하자면 근대는 인간이 폐기처분해야 할 것들의 총목록이며, '탈근대' (postmodernity)란 근대 폐기가 시작되고 그 유산의 용도가 정지되는 시대다.